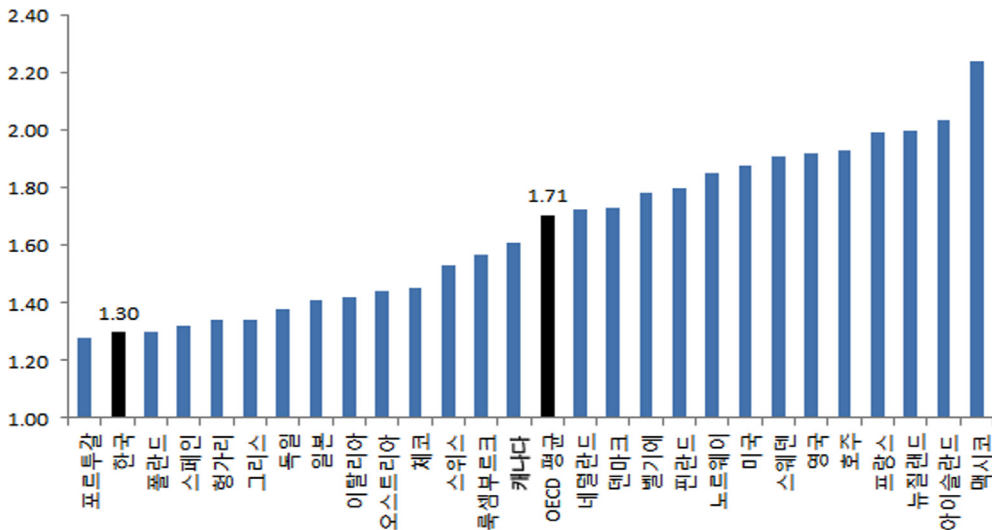


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국제비교

- 우리나라 2012년 합계 출산율은 OECD 주요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낮은 1.3명으로 나타남.
 - 합계 출산율(TFR : Total Fertility Rate)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며,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.
 - 2012년 OECD 평균은 1.71명으로 호주, 영국, 미국, 덴마크, 네덜란드 등은 OECD 평균을 넘는 수준에 있으며, 아이슬란드, 뉴질랜드,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2명을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.
 - 반면 스위스, 체코, 이탈리아, 일본, 독일 등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1.4~1.5명으로 나타남.
 - 2013년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(잠정치)은 1.2명으로 2012년에 비해 더 낮아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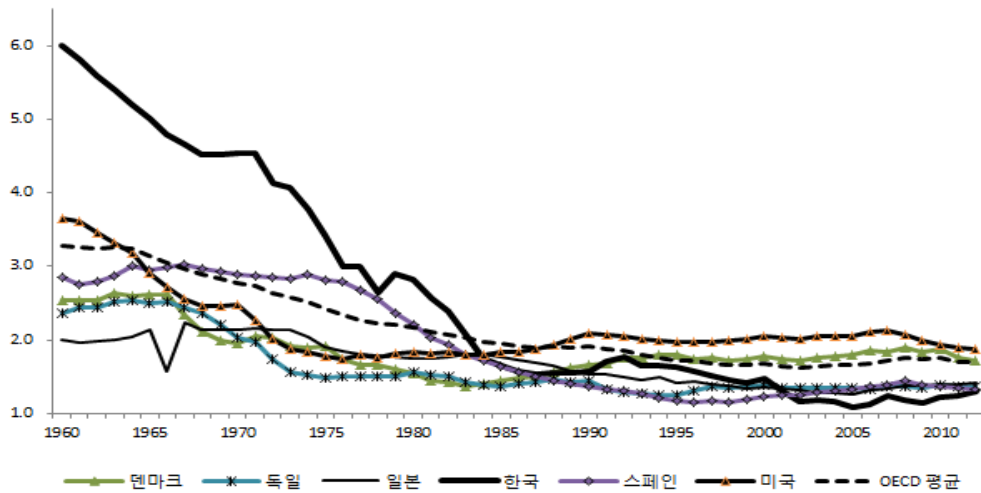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(2012)



주 : 캐나다는 2011년임.
자료 : OECD, <http://www.oecd.org/social/soc/oecdfamilydatabase.htm>

- [그림 2]를 보면, 지난 50년간 출산율은 대부분 국가에서 급격히 감소했는데, 우리나라의 감소추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남.
 - OECD 평균은 1960년대 3.3명에서 2012년 1.7명으로 줄어듦.
 - 우리나라는 1960년 약 6명 이후 1980년대 중반 1.5명까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고, 1990년대 중반 2명으로 약간 상승함.
 - 2000년 이후에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출산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.

[그림 2]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장기추세(1960~2012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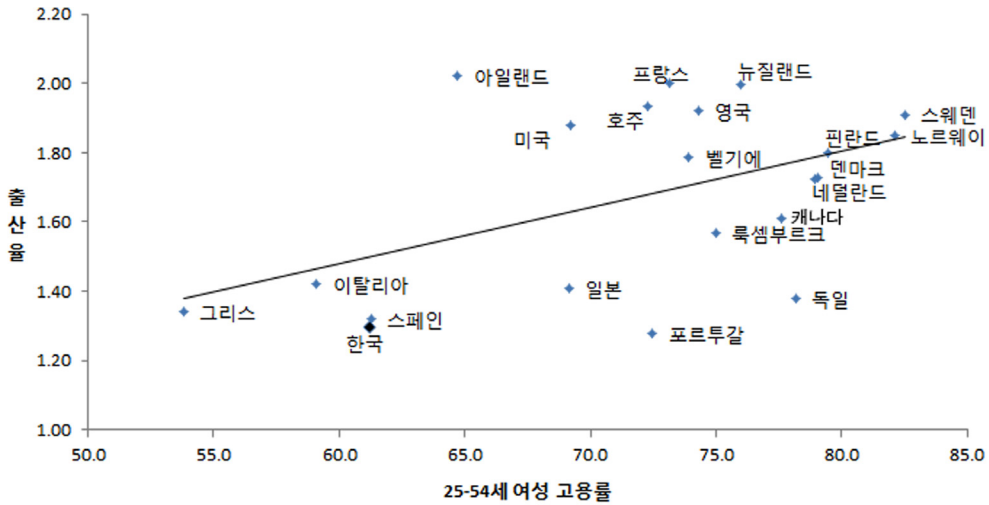
자료 : OECD, <http://www.oecd.org/social/soc/oecdfamilydatabase.htm>

-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를 보면,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관계에 있음(그림 3 참조).
 -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고용율 모두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으며,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나타남.
 - 반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중 노르웨이, 스웨덴, 네덜란드, 덴마크, 영국, 프랑스,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의 25~54세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20%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영유아자녀 양육지원, 육아휴직,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 일·가정 양립관련 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질적 제도 사용이 가능한 기업문화와 육아·가사가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선진국은 높은 고용률과 함께 출산율도

높게 나타나고 있음.

-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는 가구 수나 사회·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므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함. **KLI**

[그림 3] 주요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관계(2012)



주: 캐나다는 2011년 기준임.
 자료: OECD, <http://www.oecd.org/social/soc/oecdfamilydatabase.htm>

(정성미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